

# 기출분석방법(문과)

안녕하세요. 홍현빈입니다.

수학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도 많이오고,  
넷상에서도 많이 보이는지라,  
칼럼으로 올려버리는게 여러 수험생분들이나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무래도 시기도 예비고3분들 다들 기출 풀 때이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시험지 형식으로  
칼럼을 쓰는건 인쇄하셔서 학습할 때 좋게끔 하려함이니깐  
**인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하면,

“기출 분석을 해야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기출분석은 도대체 뭐고,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하면 이제 대답들이  
정말로, 매우,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럼 기출분석이 무엇인지부터,  
왜 해야하며 어떻게 하는건지, 그것만 하면되는지  
등을 자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기출분석이 무엇인가.

일단, 기출은 너도나도 다 풀어봅니다.  
내신만 하더라도 3주전이든, 시험보기 직전이든,  
작년도 중간고사 시험지정돈 풀어보잖아요?

당연한겁니다.

같은 것을 배우더라도 그게 어떤 시험을 통해  
나오느냐에 따라 출제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신도, 어느학교에서 출제했느냐 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수험생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수학 기출을 열심히 끙끙대며 풀니다.

사실 정상적인, 고3학생들이라면, 1,2월에 최소 3월  
모의범위의 기출은 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서 “어느정도” 잘 나옵니다. 성적은.

왜일까요?

당연한겁니다.

두 달 내내 공부했던 것이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주니깐요.

3월 뿐만 아니라 6월, 수능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줍니다.

당장 기출퍼서 어느단원어들 펴보면

육안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이 도배되어있는 걸 알 수 있습  
니다. 지금껏 출제됐던 문제들인데, 다 비슷하게 출제되었  
다는걸 알 수 있죠.

그럼 기출만 5번,10번 풀어주면 수능 때 어느정도의  
성적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진짜예요

문제는, 그 “어느정도” 가 도대체 얼마냐는게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그 “어느정도”를 3등급이라 봅니다.

2등급에 가깝냐 마냐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3등급이라  
봅니다.

3등급이면, 비율상 11%이고,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어느정도 공부에 뜻있고 열심히 하는학생들만 모아서 다시  
%를 내보면, 그들 중 40~50% 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상대평가”라는 관점에서보면,

기출은 결국 다 한번씩 풀어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차피 너도나도 다 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면  
성적도 결국 너도나도 받는 성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점수라는 절대치로 보면,

기출로는 100점을 받을 수는 없단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게 뭐냐면,

바로 기출“분석” 과 그 향후 공부방향 입니다.

일단, 기출분석은 절대로,

단순히 5번,10번 본다.

의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출을 푸는 이유는, 같은 것을 가지고도 누가, 혹은 어느 단체가 출제하느냐에 따라 시험은 달라진다. 라 했습니다.

즉, 평가원이란 집단이 “고교과정의 수학”을 가지고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출제하는가.

를 분석하고, 앞으로 학습방향과 시험을 푸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출분석이고, 기출분석의 이유입니다.

사실 어느정도 “분석” 이 필요없을정도로 정형화되어있거나 쉬운 문항은 “분석”이 필요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번 풀어서 풀이과정도 굳이 자세히 설명할줄 몰라도 맞출 수 있고 그러면 분석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죠.

그리고 조금 꼬아서 출제되고 틀리면 하는 말이

“평가원 통수 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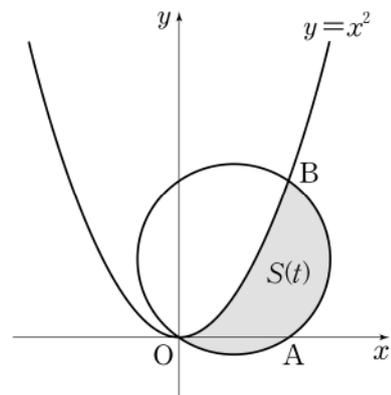
겠죠.

분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림과 같이 곡선  $y=x^2$  과 양수  $t$ 에 대하여 세 점  $O(0, 0)$ ,  $A(t, 0)$ ,  $B(t, t^2)$  을 지나는 원  $C$ 가 있다. 원  $C$ 의 내부와 부등식  $y \leq x^2$ 이 나타내는 영역의 공통부분의 넓이를  $S(t)$ 라 할 때,  $S'(1) = \frac{p\pi+q}{4}$  이다.  $p^2+q^2$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q$ 는 정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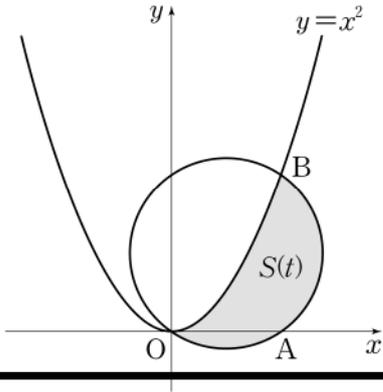
[4점][2012년 9월]



그림과 같이 곡선  $y=x^2$ 과 양수  $t$ 에 대하여 세 점  $O(0, 0)$ ,  $A(t, 0)$ ,  $B(t, t^2)$  을 지나는 원  $C$ 가 있다.

원  $C$ 의 내부와 부등식  $y \leq x^2$ 이 나타내는 영역의 공통부분의 넓이를  $S(t)$ 라 할 때,  $S'(1) = \frac{p\pi+q}{4}$ 이다.  $p^2+q^2$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q$ 는 정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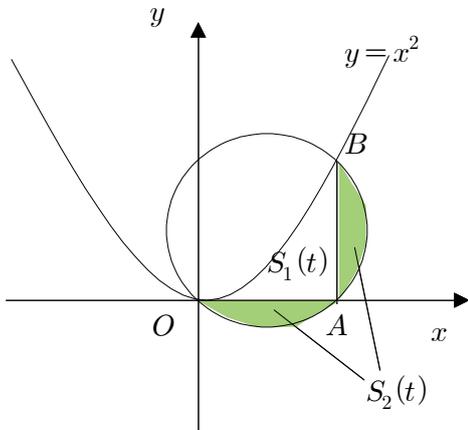
[4점][2012년 9월]



<해설>

세 점  $O(0, 0)$ ,  $A(t, 0)$ ,  $B(t, t^2)$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 는 직각삼각형이므로 원  $C$ 의 반지름의 길이  $r$ 는

$$r = \frac{1}{2} \overline{OB} = \frac{1}{2} \sqrt{t^2+t^4}$$



위의 그림에서  $S_2(t)$ 의 넓이는

$$S_2(t) = (\text{반원의 넓이}) - (\text{직각삼각형 } OAB \text{의 넓이})$$

$$= \frac{1}{2} \pi \left( \frac{1}{2} \sqrt{t^2+t^4} \right)^2 - \frac{1}{2} \times t \times t^2$$

$$= \frac{1}{8} (t^2+t^4)\pi - \frac{1}{2} t^3$$

위의 그림에서  $S_1(t)$ 의 넓이는

$$S_1(t) = \int_0^t x^2 dx = \left[ \frac{1}{3} x^3 \right]_0^t = \frac{1}{3} t^3$$

따라서 구하는 넓이  $S(t)$ 는

$$S(t) = S_1(t) + S_2(t)$$

$$= \frac{1}{8} (t^2+t^4)\pi - \frac{1}{2} t^3 + \frac{1}{3} t^3$$

$$= \frac{1}{8} (t^2+t^4)\pi - \frac{1}{6} t^3$$

$$S'(t) = \frac{1}{8} (2t+4t^3)\pi - \frac{1}{2} t^2$$

$$\therefore S'(1) = \frac{1}{8} (2+4)\pi - \frac{1}{2} = \frac{3\pi-2}{4}$$

$$\therefore p=3, q=-2$$

$$\therefore p^2+q^2 = 9+4 = 13$$

이 문항은 예~ 전에 제가 칼럼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실 일차원적으로 기출분석하는것에 대한 전달을 확실하게 해줄 단원은 수열단원과 적분단원인 것 같...습니다. (이젠 교과과정이 바뀌었지만..)

예제랑 해설은 다 보셨죠?

이 문항은 확실히 문과학생들은 어디서 듣거나,본 적이 없단 전제하에 잘 못 풀립니다. 실제로 난이도 있었던 문항이고.. 난이도 있구요.(ㅎㅎ)

이 문항을 왜 못풀었느냐. 에 대해선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바로 왼쪽 해설처럼 꼬깔생각 x
2. 삼각형  $OAB$ 가 직각삼각형 인 것을 몰랐음.  
(구체적으로는 원과 관련된 성질을 모른다 할 수 있죠)

2번사항에 대해선 그림 고1과 중학도형까지 공부해야하느냐? 하는 사람들 있는데,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죠.

다만 당장 그런것들 하기엔 여러분 성적이 너무 급하지 않나요?  
또한 다른 모의고사들이 아닌 수능 때, 큰 해가 되는건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당장 직접출제범위에 힘을 쏟는게 맞다 봅니다.

다만, 1번 사항에 대한 접근이 안되서 틀렸으면, 그건 이제 문항을 보는 눈 자체가 매우 부족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시는 수학2+미적분1+확통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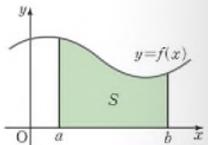
저 문제처럼 그래프 하단이 색칠되어 있는 개념(공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수  $y=f(x)$ 가 닫힌 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곡선  $y=f(x)$ 와  $x$ 축 및 두 직선  $x=a, x=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를 구해 보자.

(i) 닫힌 구간  $[a, b]$ 에서  $f(x) \geq 0$ 일 때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넓이  $S$ 는

$$S = \int_a^b f(x) dx = \int_a^b |f(x)| dx$$

이다.



안보이시지만 뭔지 알죠?

“ $x$ 축과 곡선  $y = f(x)$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혹은

“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

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나한테 뭔가의 넓이를 구하라하면 기본적으로 “저것만” 떠올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 저걸 안해요

아니 못하는게 맞겠죠?

대부분이 처음엔,

“? 뭔솔”

하고 끝납니다 ㅋㅋㅋㅋ

...

죄송해요 웃어서.

하지만 수업 때도 풀어봐~ 하면 거진 다 비슷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해자체가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문과분들이니 공식 찰찰 늘어대며 설명하는 것보단 좀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게 좀 더 이해가시겠죠? 잘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항상 수업 때 많이 써먹는 예시입니다.

제가 수학강사하는거 때려치고, (설마 그럴일은 없지만) 영어과외를 했다 칩시다.

초등학생부터 정복하겠다 해서 초등과외를 한다쳐요.

아니 유치원생.

유치원생학생들한테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첫시간에 열심히 알려주고,

“다음시간에 시험볼테니 외워와!!”

했습니다.

그 다음시간에 저는,

“B” 로 시작하는 단어를 들고 가서 시험을 보게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뇨 절대요. 네버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왜?

시험이 뭔데요.

“ 너가 배운 걸 잘 학습했는지 확인하겠음”

하는게 시험입니다.

근데 A 가르쳐두고 B 물어보는건 말도 안되는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 딱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즉  
"A"배웠으니 이번 시험 문제는 A 가 나올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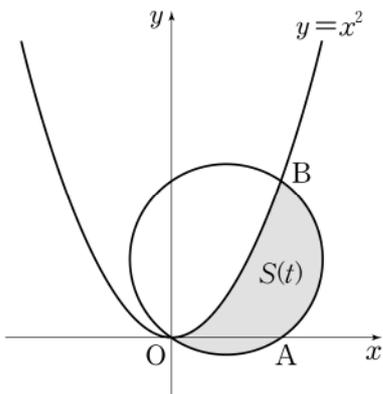
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만 알면, 아무리 꼬아내고 숨겨내도 그 문제에 접근하는 공식,방법을 아니 이전과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겁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보죠.

그림과 같이 곡선  $y = x^2$ 과 양수  $t$ 에 대하여 세 점  $O(0, 0)$ ,  $A(t, 0)$ ,  $B(t, t^2)$  을 지나는 원  $C$ 가 있다. 원  $C$ 의 내부와 부등식  $y \leq x^2$ 이 나타내는 영역의 공통부분의 넓이를  $S(t)$ 라 할 때,  $S'(1) = \frac{p\pi + q}{4}$ 이다.  $p^2 + q^2$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q$ 는 정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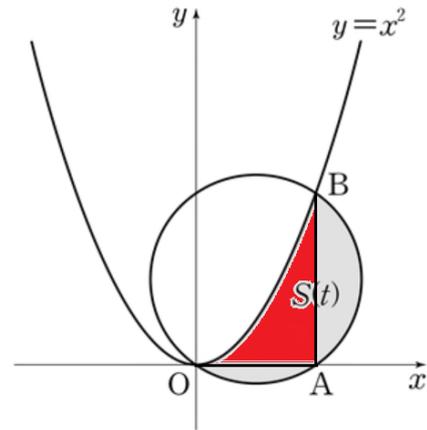
[4점][2012년 9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고 , 아까 말한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를 무조건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S(t)$ 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배운 넓이는 구할 수 있다! 하고 "내가 배운, 구할 수 있는 넓이" 를 생각해보면,

바로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빨간넓이는,  $x^2$ 을 0부터  $t$ 까지 적분하면 되는거고, 그럼 나머지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 원의성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부분이 못 푸니까" 기출분석의 방법이라기 보다는 문제에 접근하는 법 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기출분석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맞든 틀리든, 풀이를 보면서 내가 관련 개념을 정확히 끄집어 접근했는가.

그걸 한문제 한문제 풀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물론, 접근법들이 저렇게 다 쉽지는 않아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첫째항이 0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수열  $\{b_n\}$ 이  $a_{n+1}b_n = \sum_{k=1}^n a_k$ 를 만족시킬 때,  $b_{27}$ 의 값을  
구하시오.

[4점][2007년 수능]

첫째항이 0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수열  $\{b_n\}$ 이  $a_{n+1}b_n = \sum_{k=1}^n a_k$ 를 만족시킬 때,  $b_{27}$ 의 값을 구하시오.  
[4점][2007년 수능]

자, 일단 수열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고 갑시다.

크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 /  $\sum$  와 그 성질”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죠?

애시당초 수많은 수열에서, 내가 공식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등차” 와 “등비” 뿐이 없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외에 것은 식이 문제에서 주어졌었거나, 규칙성을 찾아 내거나 하지 않는이상 내가 다룰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수열  $\{b_n\}$**

아?

$a_n$ 은 등차수열이라 주어졌었고,  $b_n$ 은 “수열”이라 주어졌 있습니다.

즉,  $a_n$ 에 관해선 내가 “일반항 식”을 쓰거나, “합공식”을 쓸 수 있고,  $b_n$ 은 그렇지 못하단 얘기가 되겠죠.

즉, 문제에서  $a_{n+1}b_n = \sum_{k=1}^n a_k$  을 보고, 바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nd \times b_n = \frac{n\{(n-1)d\}}{2}$$

$$\therefore b_n = \frac{n-1}{2} \cdot b_{27} = 13$$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이 문제에서 잘못된 시도를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sum_{k=1}^n a_k$  꼴이 나왔을 때 자주하는 식 때문인데요,

바로  $S_n - S_{n-1} = a_n$ 입니다.

저 문제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a_{n+1}b_n - a_n b_{n-1} = a_n$  가 되고,

여기서 아무리 식을 왔다갔다해도,  $b_n$ 에 대한 식은 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가 아녘다는 거죠.

애시당초 문제에서 “등차수열” 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a_n$ 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sum_{k=1}^n a_k$  이것을 보고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떠올리는게 맞지,  $S_n - S_{n-1} = a_n$  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틀린건아니죠 물론)

하지만  $\sum_{k=1}^n a_k$  이 식에서  $a_n$  이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sum$ 의 성질이나  $S_n - S_{n-1} = a_n$  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배운 것내에서만 생각하고, 그것들로 어떻게 기출을 풀고 있는가를 확실히 정리하세요. 그게 기출분석이고, 기출을 올바르게 푸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바로 적용가능한지 봅시다.

두 수열  $\{a_n\}$ ,  $\{b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_{10}$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가) \sum_{k=1}^n b_k = n^2 + n$$

$$(나) \sum_{k=1}^n a_k b_k - 5 \sum_{k=1}^n b_k = \frac{n^2(n+1)^2}{2}$$

두 수열  $\{a_n\}$ ,  $\{b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_{10}$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가) \sum_{k=1}^n b_k = n^2 + n$$

$$(나) \sum_{k=1}^n a_k b_k - 5 \sum_{k=1}^n b_k = \frac{n^2(n+1)^2}{2}$$

이제 알겠죠? 처음에 “두 수열  $a_n, b_n$ ”을 언급하지만 둘다 등차인지, 등비인지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등차, 등비수열의 일반항/합공식을 전혀 못쓴다는 얘기고, 그 외의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sum$ 가 등장하므로, 나는  $\sum$ 에 대해서 배운것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sum$ 에 대해서 배운것은 당연히  $\sum$ 의 성질과, 아까 언급한  $S_n - S_{n-1} = a_n$ 이 될겁니다.

풀이해보죠.

(가) 식에서,  $S_n - S_{n-1} = a_n$ 을 적용하면,  $b_n = 2n$  이 됩니다.

이제 (나) 식을 보면,

$$\sum_{k=1}^n a_k b_k - 5 \sum_{k=1}^n b_k = \frac{n^2(n+1)^2}{2}$$

이 식에서,  $\sum$ 의 성질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sum_{k=1}^n b_k(a_k - 5) = \frac{n^2(n+1)^2}{2}$$

그런데, 마찬가지로  $S_n - S_{n-1} = a_n$ 을 해주면,

$$b_n(a_n - 5) = \frac{n^2(n+1)^2}{2} - \frac{(n-1)^2(n)^2}{2} = \frac{n^2 \times 4n}{2}$$

그런데  $b_n = 2n$ 이므로,  $a_n = n^2 + 5$ 가 됩니다.

답은 105가 되겠네요.

아마 나형학생들은, 이런 문제정도쯤은 2분안엔 술술 풀어야 1등급 너머를 바라보실수 있을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문제를 술술 풀기위해 기출분석을 하는 것이고, 제발 아무생각없이 기출을 풀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 일차원적인 기출분석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죠? 누가 출제하느냐에 따라 시험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서 시험의 성격은 지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평가원이 출제하는 그 “시험의 성격” 까지 분석에 포함되어야 진정한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저나, 다른 강사들이나, 수험서, 인강등에서 가르치는 것들이겠죠 결국.

이 문항은 이런 성격이있는 문항이다!

라고 대놓고 말은 안해도

강사들의 해설에는 그 성격의 제각각의 해석 들이 녹아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나 뭐 성격은 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 오늘 서술한 거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하셔도 처음에 말한 “어느정도의 등급” 보단 잘 받으실거라 믿습니다.

항상 제가 가르치며 경험하는 것들이니깐요.

## -그럼 기출만 풀면 되는가?

하지만,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석을 하려면, 분석의 도구가 있어야한다.

즉 뭐가 직접출제과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접근을 확실히 하던가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그 유명한, 요즘 많이들 언급하는 교과서 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하기전 개념학습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고, 그 개념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포맷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만 하면 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2. 그럼 오직 교과서로만 개념학습하고, 기출만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죠.

그건 정말 “이상적인” 소리입니다.

아니면 산전수전 다 겪고 뒤돌아봤더니 저거 두개만 있었으면 되더라. 하는 무책임한 소리죠.

그 이유는, 여러분의 최종목표는 결국 100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길은 건뎌 점수는 잘나와야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교과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교과서가 포함하는 그 내용과 서술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오직 교과서로만 학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나면, 그것에 단번에 능수능란 해지나요?

구구단 처음배우셨을 때 마구마구 빠르게 외우셨나?

아닙니다.

어린시절 왜그렇게 학습지를 풀고 하기싫어 징징울면서 구문을 푸셨나요.

그렇게 해야만 공식들이 익숙해지는 거고  
그 다음과정을 배우는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당연한 말이지만, 기출분석 할때에는 교과내용으로  
하되, 그 교과내용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수많은 문제풀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출분석도 마찬가지로요.

기출만 하는건 위험하다 했습니다. 왜냐면.

기출분석을 통해 잡은 그 풀이방향, 방향만 알면되나요?

아네요. 체화를 해야하고, 숙련도를 키워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많은 문제들에 접목시켜  
가면서 틀려도 보고 오답도 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틀리고 또 도전하고 맞춰도 보고 하면서

내가 분석해서 잡은 방향에 대한 내공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산전수전” 이란 단어는,  
만점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가 생각합니다.  
(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꼬투리 잡지 마세요  
제발. 너 잘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관련 개념을 교과서나 인강이나 뭘로든 학습.  
썸 같은 단순공식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을 왕창 품.  
(사실 이런것들을 고2때 해주죠.)

그 후 기본공식은 단련이 되었으니 기출학습 + 분석.

기출 5번 ~ 10번 풀면서 최소 기출정도는 해설 할 수 있  
어야함 (제가 아까 썼던 분석법 대로.)

그 후 기출스러운 “새로운” 문항들을 풀면서 학습.

+ 사실 몇년전만해도 저 “기출스러운 새로운 문항들” 이  
정~ 말 없었습니다. 요새는 여러 뛰어나신 분들이  
만드시고 하시니, 수험생분들은 복받으신 것같네요..

물론 저것만으로 안정적인 100점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또 풀면서 실전에서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또 훈련해야하니까요. 그런과정들은 9월즈음 많이들 하니  
그때 쓰겠습니다. (사실 매년 써왔습니다.)

어느정도 와닿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이라면, 지금 기출시작하신 분들이라도  
다시한번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말해드린것들을  
적용해보시구요.

다음 칼럼에선 좀 더 많은 예제들과,  
아까 말했던 평가원의 성격. 이란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 그 출제방침. 이란 것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분석해서 하는 것들이  
현강, 인강,수험서 같은 것들이구요.

++다른 칼럼이나 수업안내는 “[흥현빈.com](http://흥현빈.com)”참고.